

행복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이경화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Research on factors influencing happiness

Kyung-Hwa Lee

Doctoral student, Dept. of Social Welfare, Mok Won University

요약 사람들은 복잡한 철학이나 명확한 삶의 철학 없이도 현대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것은 인생의 의미가 없거나 혼란스럽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삶의 의미에 대해 간단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만족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체계화할 필요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즉, 삶은 누구에게나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반드시 철학적 체계로 규정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삶을 하나의 철학적 체계로 명확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삶은 많은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이 의미는 각자의 목적, 가치, 능력을 느끼는 것, 그리고 자신에 대한 가치감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주제어 : 삶의 의미, 철학, 삶의 만족도, 가치감, 실존적 철학

Abstract People can live happily in modern society without a complicated philosophy or a clear philosophy of life. This does not mean that life is meaningless or confusing. People can be satisfied with simple, concrete solutions to the meaning of life and live without the need to completely systematize everything. In other words, life can have various meanings for everyone, and this does not necessarily need to be defined by a philosophical system. Although we cannot clearly divide everyone's life into one philosophical system, each person's life can nevertheless have many meanings. This meaning can be found in each person's sense of purpose, worth, ability, and self-worth.

Key Words : Meaning of life, philosophy, life satisfaction, sense of value, existential philosophy

1. 서론

사람들은 복잡한 철학이나 명확한 삶의 철학 없이도 현대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1]. 이것은 인생의 의미가 없거나 혼란스럽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삶의 의미에 대해 간단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만족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체계화할 필요 없이 살아갈 수 있다[2]. 즉, 삶은 누구에게나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반드시 철학적 체계로 규정될 필요는 없다[3]. 우리는 모든 사람의 삶을 하나의

철학적 체계로 명확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삶은 많은 의미를 지닐 수 있다[5]. 이 의미는 각자의 목적, 가치, 능력을 느끼는 것, 그리고 자신에 대한 가치감 등에서 찾을 수 있다[6].

"의미의 기념"이라는 표현은 다소 모호하다. 이 표현은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그 의미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의미의 기념"은 어떤 중요한 사건, 인물, 생각 또는 가치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기념하는 행위를 의미할 수 있다. 예를

*Corresponding Author : Dong-Hwa Aan(party0n@naver.com)

들어,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기념일, 중요한 인물의 기념비, 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예술 작품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7].

“의미”라는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된다. 기본적으로, 의미는 어떤 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목적, 또는 내포하는 바를 나타낸다[8]. 이 개념은 언어학, 철학, 심리학, 문화 연구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각 분야에서 의미의 정의와 해석은 다를 수 있다. 언어학에서 의미는 단어, 문장, 또는 언어적 표현이 가리키는 바를 지칭합니다. 의미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명시적 의미)와 비유적, 암시적 의미(암시적 의미)를 포함할 수 있다[9]. 철학에서는 의미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탐구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의미는 존재, 인식, 지식, 가치, 의도 등과 같은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10]. 예를 들어, 삶의 의미, 도덕적 가치의 의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심리학에서 의미는 개인의 경험, 감정, 동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경험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이해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포함된다[11]. 문화 연구에서는 문화적 상징, 행위, 텍스트 등이 어떻게 의미를 생성하고 전달하는지를 연구합니다. 이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의미의 구성과 해석에 초점을 맞춘다[12]. 이처럼 의미는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사용될 수 있으며, 특정 맥락에서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본론

본 연구의 목적은 중장년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불안감, 삶의 의미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가설 1. 지각된 스트레스는 삶의 의미와 부(-)적인 인과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2. 지각된 스트레스는 삶의 만족도와 부(-)적인 인과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3. 불안감은 삶의 의미와 부(-)적인 인과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4. 불안감은 삶의 만족도와 부(-)적인 인과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5. 삶의 의미는 삶의 만족도와 정(+)적인 인과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6. 지각된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는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7. 불안감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는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분석 방법을 쉽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으로 여기서는 조사 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예를 들어 나

이, 성별, 교육 수준 등을 세어보고, 각각의 특성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확인하며 이를 통해 연구 대상 그룹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기술분석(Descriptive Analysis)으로 이 방법은 연구에 포함된 주요 변수들, 즉 잠재변인들의 기본적인 통계적 정보를 살펴본다. 예를 들어, 평균, 표준편차 등을 계산하여 변수들의 일반적인 경향이나 분포 상태를 이해한다.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 분석은 연구에 포함된 서로 다른 변수들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지를 측정하는데 예를 들어, 한 변수가 증가할 때 다른 변수도 함께 증가하는지, 또는 반대로 감소하는지 등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변수들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이 연구는 대상자들의 기본적인 특성을 수치로 파악하고, 중요한 변수들의 일반적인 특징과 서로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했다[13]. 이후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게 되는데 주요 잠재변인들을 살펴보고 이들의 인과관계와 적합도를 검증한다. 이후 구조모형분석을 살펴본다. 구조모형 분석에서는 변수간의 유의미한 잠재변인들을 파악하여 영향력의 효과크기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해 효과분해를 방법을 실시하고[14] 아울러 매개변인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분석을 사용하였다[15]. 구조방정식에 대한 모형추정의 방법으로 이 연구에서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모형을 분석하였다[16].

최대우도법은 측정변수를 우리가 생각할 때 다변량이라는 점을 가정하여 정규분포(multivariate normal distribution)의 가정을 만족하고 충족할 때 정확한 미지수 추정을 생각할 수 있도록하며 정규분포의 생각하며 일부 벗어나더라도 표본크기만 통계를 분석하는데 적절하다면 미지수 추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매우 우수한 장점이 있다[17]. 또한 본 연구에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판정을 위해 χ^2 값과 TLI(Tur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FI(Comparative fit index)를 활용하고 분석에 이용하였다. χ^2 검증의 경우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χ^2 값을 분석할 때 우리는 함께 증가하는 등 표본 양적 크기에 세심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기에 구조모형의 적합성을 추정하기 위해 다른 지

수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TLI의 경우 표본양과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구조모형의 가정치와 간명성을 고려하면서 수정모형을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8-20]. CFI는 비록 모형의 간단명료함을 고려하지는 않지만 표본크기에 세밀한 반응하지 않는 장점을 지니며 RMSEA는 모형의 반면적인 부분의 오류를 찾아내고 간명성을 동시에 파악하는 이점이 있다. TLI와 CFI의 경우 .09이상인 경우 가장 안정적인 적합도로 판단하고, RMSEA는 .1미만이면 가장 훌륭한 적합도(good fit), .05미만이면 아주 좋은 적합도(very good fit)로 판단한다[21-23]. 이상의 구조방정식 분석은 AMOS.24.0을 사용하였다.

3. 결론

본 연구모형의 잠재변수인 지각된 스트레스와 불안감, 삶의 의미, 삶의 만족도가 학자들이 설명한 이론적 개념을 충분하고 명확하게 잘 반영하고 있는가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분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통한구조방정식 측정모형 분석으로 연구를 하였다.

확인적 요인 분석결과 $\chi^2=1356.176(df=203, p=.000)$ 으로 나타나 χ^2 검증은 기각되었다. 하지만 χ^2 값은 표본크기에 통계를 분석할 때 반응한다는 점에서 표본크기가 증가하면 영가설을 기각하기 쉽다[24-26]. 따라서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으면서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해 줄 수 있는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다른 적합도 다. 이에 다른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TLI=.907와 CFI=.919, RMSEA=.054로 양호한 적합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대부분의 측정변수의 표준화계수(표준적재치)가 .50이상을 넘는 적정수준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구조방정식의 검정통계량인 Critical Ratio(C.R.)는 절대치 | 1.96 | 보다 높아야 유의수준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27-30]. 모든 C.R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본 연구의 측정모형이 표본자료에 잘 적합함을 판단할 수 있다[29]. 해당 연구에서 가설로 세운 중요한 잠재변수 간의 원인결과관계를 알아내기 위한 구조모형의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인과관계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chi^2=833.834(df=113, p=.000)$, TLI=.922, CFI=.935, RMSEA=.057으로 나타나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조모형 분석 결과, 중장년의 지각된 스트레스는 삶의 의미에는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beta=-.075, p<.05$) 삶의 만족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삶의 의미는 낮아짐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불안감은 중장년의 삶의 의미에는 부(-)적인 영향을($\beta=-.173, p<.001$), 삶의 만족감에는 정(+)적인 영향($\beta=.097,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불안감이 높을수록 삶의 의미는 낮아지나 삶의 만족도는 반대로 증가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삶의 의미는 삶의 만족감에 정(+)적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장년의 삶의 의미가 높을수록 스스로의 삶의 만족도 역시 높아짐을 의미한다. 중장년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불안감 삶의 만족감 사이에서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효과분해를 통해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효과를 각각 확인하고 그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이처럼 잠재변수 간의 영향관계를 효과분해를 통해 살펴보게 되면 지각된 스트레스 및 불안감, 삶의 의미와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각된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총 효과는 크기 -.053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직접효과(지각된 스트레스→삶의 만족감)은 .018, 매개변수인 삶의 의미를 통한 간접효과(지각된 스트레스→삶의 의미→삶의 만족감)은 -.071($p<.001$)로 나타났다. 또한 불안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총효과 크기는 -.068이며 이중에서 직접효과(불안감→삶의 만족감)는 .097, 간접효과(불안감→삶의 의미→삶의 만족감)는 -.1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중장년의 삶의 만족도는 지각된 스트레스 및 불안감의 직접효과보다는 삶의 의미를 통해 간접적으로 받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중장년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삶의 의미에 대한 개입이 보다 중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효과분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삶의 만족감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변인은 삶의 의미(.953)였으며, 삶의 의미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변인은 불안감(-.173)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과학적 통계를 이용해 결과도출을 하여 발견된 부분으로 지각된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불안감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가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지만 이를 실계로 확인하기 위해

서는 별도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여 판단해야 한다[2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불안감 그리고 삶의 만족도사이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가 매개효과(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검증을 실시하였다[28-29].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과학적방법으로 검증된 통계적 모의실험(simulation)를 바탕으로 대표집의 허구의 무선표본을 만들어내고 각각의 표본에서 매개하는 효과의 회귀계수와 표준오차를 설정하여 추정된 표준화 회귀계수의 분포에서 유의미한 수준 95% 신뢰구간을 파악하고 해당구간의 하위경계(lower bound)와 상위경계(upper bound) 값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생각하고 검증하게 된다[29-30]. 이러한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은 매개효과가 통계적 무선표본에 의한 결과가 아님을 판단하는 것으로(Shrout and Bolger, 2002) 가장 강력한 매개효과 검증방법으로 알려져 있다[30].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ias Corrected Bootstrapping)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 Estimate, S.E. 부트스트래핑 95% 신뢰구간 값을 분석하였다. 95%의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판단한다[28]. 분석결과, 지각된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불안감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의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모두 0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두 경로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는 $p <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7가지 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장년의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삶의 의미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1은 지지되었다. 둘째, 중·장년의 지각된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2는 기각되었다. 셋째, 중·장년이 느끼는 불안감이 높을수록 삶의 의미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3은 지지되었다. 넷째, 당초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이 느끼는 불안감이 높을수록 이들의 삶의 만족도는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반대로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4는 기각되었다. 다섯째, 중·장년의 삶의 의미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5는 지지되었다. 여섯째, 분석결과 중·장년의 지각된 스트레

스는 삶의 의미를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6은 지지되었다. 이는 중·장년의 지각된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의 삶의 의미를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중·장년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중·장년의 불안감이 삶의 의미를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7은 지지되었다. 이는 중·장년의 불안감이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 이들의 삶의 의미를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삶의 만족도 역시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효과분해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불안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보다 삶의 의미를 매개로한 간접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장년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것보다 이들의 삶의 의미를 강화하는 전략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의미한다.

REFERENCES

- [1] Y. G. Park & E. Y. Han. (2014). An Analysis of Disabled rights.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26, 27-53.
DOI : 10.22779/kadw.2014..26.27
- [2] T. D. Kim & K. B. Kim. (2019). Analysis of Human Rights Ordinance in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Law Research*, 10(1), 97-121.
- [3] W. S. Jang. (2017). A review on the weekly enactmen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in Chungcheongbuk-do and the guarantee of human rights. *Judicial Administration*, 58(5), 27-43.
- [4] D. H. Kang. (2015). *A study on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at the municipal ordinances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a person with disability, of their human rights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Master's thesis. Je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 [5] Daejeon. (2022). *2022 Implementation Plan for the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and Human Rights Guarantee*. Daejeon: Disabled Person Welfare Division.

- [6]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2020). *2020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nual Report*. Seoul: Planning and Finance Officer.
- [7] M. H. Lee. (2021). The Effectiveness of a Human Rights-Based Capacity Building Program for Social Workers at Senior Welfare Centers. *Health and Social Research*, 41(4), 334-348.
DOI : 10.15709/hswr.2021.41.4.334
- [8] J. I. Lee. (2021). Importance of the Legislation of the Equality Act and the Rol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4(2), 87-124.
- [9] U. Choi. (2003). A small study o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e Law &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8, 121-139.
- [10] M. Y. Lee. (2018). A Study upon the Directions in Reformation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The Law Research institute of Hongik Univ.*, 19(4), 437-452.
- [11] I. S. Lee. (2005).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Korean Welfare of the Disabled*, 1(1), 7-36.
UCI : G704-SER000010336.2005..1.002
- [12] I. H. Kwon. (2015). A Study on the Right to Life of the Disabled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Constitutional Judgment Study*, 2(2), 219-244.
DOI : 10.35215/jc.2015.2.2.007
- [13] K. G. Lee. (2000). Individual Communication Procedure under international Covenant on Political and Civil Rights and the Korean Practic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3, 35-65.
- [14] G. H. Lee. (2016). The Main Contents and Issues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Research on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7(1), 39-59.
- [15] Daejeon. (2019). *Daejeon Metropolitan City Ordinance on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Guarantee of Human Rights*. Daejeon: Autonomous regulation information system.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
- [16] K. S. Lee. (2021). Quality of Care Services For Long-term C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a Study on the Factors of Impact. *Korea Criminal Information Research*, 7(1), 75-94.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6026>
- [17] K. W. Um. (2015). Roles of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in Prevent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24, 51-73.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2199>
- [18] H. S. Kim, J. P. Jung, M. Y. Choi. (2015). The Effect of Employees' Human Rights Awareness on Intention of Ill-treatment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the Mediating Effects of facility opennes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Health and Welfare for Elderly*, 7(1), 127-138.
- [19] Y. H. Kim. (2018). *A Study on the Elderly Human Rights Condition of the Long-term Care Institution and the Impact of Elderly Human Rights Awareness of the Caregivers on their Care Service Quality*. Master's degree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Yeungnam Theological Universit, Gyeongsangbukdo.
- [20] E. H. Lee. (2014). A Study on Effects of Self-Efficacy of Social Workers in Relation to Quality of Service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Job Satisfaction-. *Korean Comparative Government Gazette*, 18(3), 261-286.
DOI : 10.18397/kcgr.2014.18.3.261
- [21] D. K. Kim & E. A. Cho. (2019). A Study on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Self-Efficacy affecting Quality of service: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Directors' Leadership Styles. *Korean Welfare of the Disabled*, 45, 115-136.
DOI : 10.22779/kadw.2019.45.45.115
- [22] D. B. Son. (2020). The Effect of Job Satisfaction of Nursing Care Workers in Elderly Care Facilities on Service Quality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and turnover intention.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Daegu Haany University, Gyeongsangbukdo.
- [23] J. D. Kwon & E. S. Shon. (2010). The effect of the elderly's self-awareness and discrimination experience on the social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and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Elderly Welfare Research*, 49, 81-105.
- [24] K. S. Kim. (2007). *A Study of the Effect of Right-based Perspective on the Practice Mode of Social Workers*. Mokw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Daejeon.
- [25] H. S. Kim. (2018). The Influence of Human Rights Perception and Professionalism on Types of the Social Work Practice of Practitioners in the Senior Welfare Facility.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9(4), 153-163.
DOI : 10.22143/HSS21.9.4.12
- [26] H. S. Kim, M. B. Jo & J. B. Kim. (2014). Relationships of Social Welfare Facility

Employees` Human Rights Awareness with their Ill-Treatment Act.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Health and Welfare for Elderly*, 6(2), 1-19.

- [27] J. H. Cho. (2018). The effect of job stres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for senior welfare facility staffs suffering from emotional labor. *Journal of venture innovation*, 1(1), 129-143.
DOI : 10.22788/1.1.9
- [28] S. J. Kang. (2018). A Study Qualitative Research on Service Providers and Users Dignified Care Experience for Long-term Care Facil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fare Practice*, 9(1), 104-131.
- [29] Y. H. Park & J. D. Rah. (2011). An Influences which Environmental Factors of Care Providers has on Self-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Health and Welfare for Elderly*, 3(2), 13-22.
- [30] S. Y. Baek. (2019). The Effects of Job Stress on the Self-efficacy and Change Jobs Nursing Care Institutio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0(4), 1325-1340.
DOI : 10.22143/HSS21.10.4.95

이 경 화(Kyung-Hwa Lee)

[정회원]



- 1993년 2월 :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육학사)
- 2000년 2월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 사회복지학과(행정학 석사)
- 2022년 12월 : 목원대학교 일반대학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박사)
- 1993년 8월 ~ 현재 : 성락종합사회 복지관장

- 관심분야 : 사례관리, 가족복지, 여성복지
- E-Mail : lkh0214@hanmail.net